

사도 성 요한의 신앙과 헌신적인 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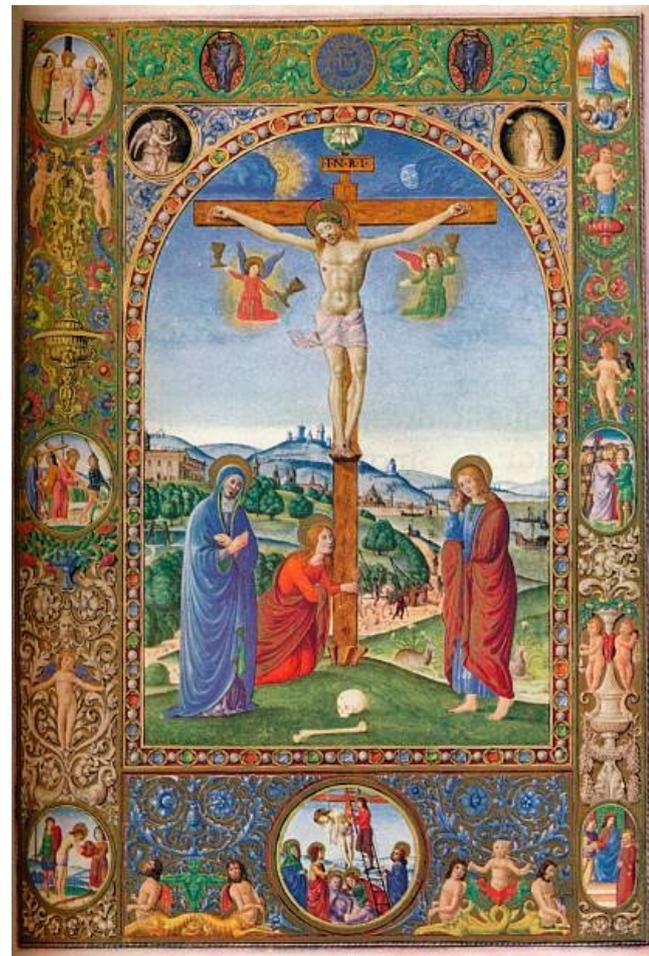
(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)

2024년, 9월 7일

레지오 마리아 전단원 대회

샌프란시스코 세나투스

임진경 카타리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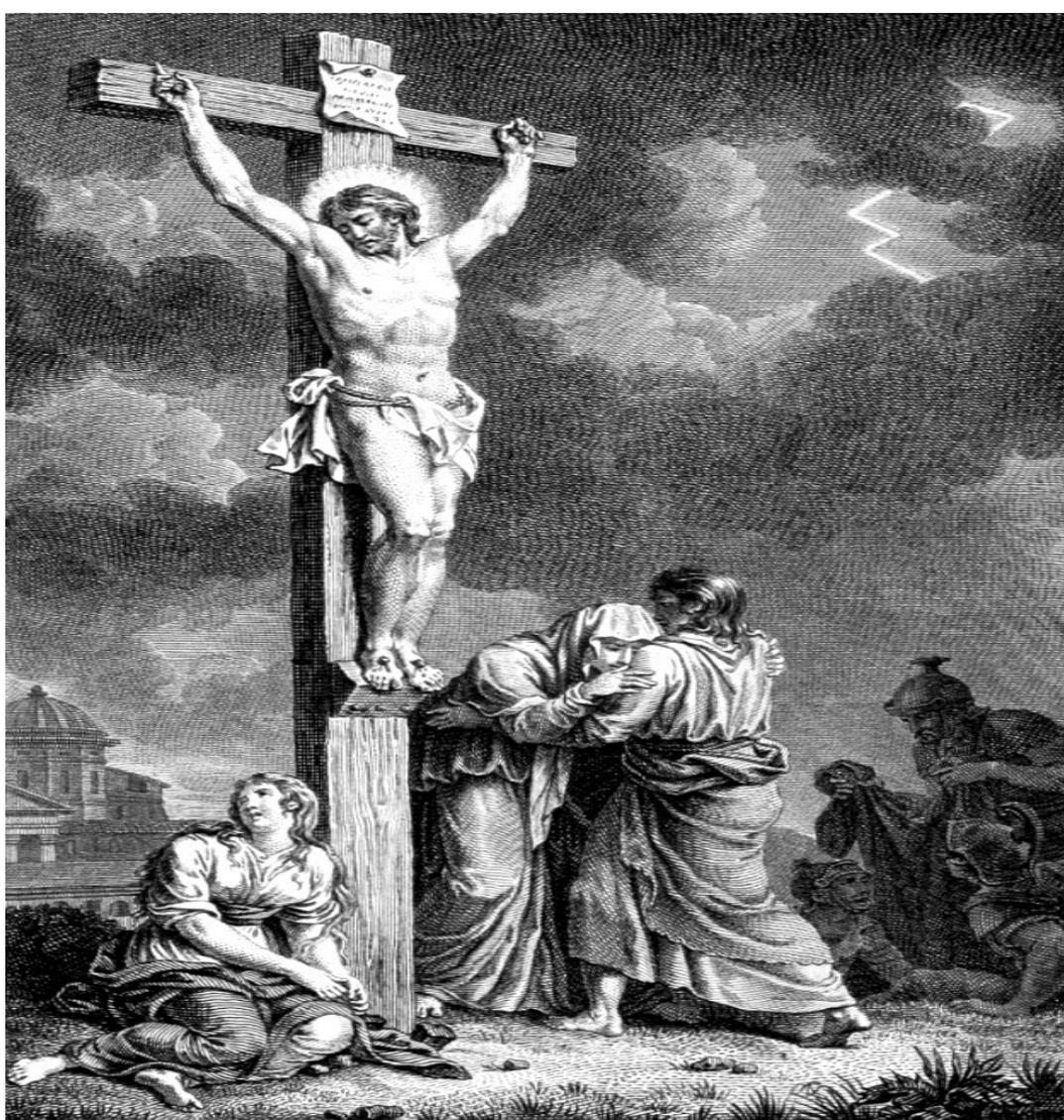
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요한

-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
- 예수님의 세례: “보라, 하느님의 어린양이 시다”(요한 1:36)
- “천둥의 아들”이라 불림 (마르코 3:17)
-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시는 제자 (요한 13:23): 특별한 유대와 친밀감



예수님 공생활 주요 사목에 등장

- 가장 가까운 세 제자: 베드로, 야고보 사도 요한
- 가나의 혼인 잔치
- 티베리아의 바다에서의 기적
- 나자로와 야이로의 딸의 부활
- 영광스러운 변모
- 최후의 만찬
-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
-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부활신앙



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깊은 유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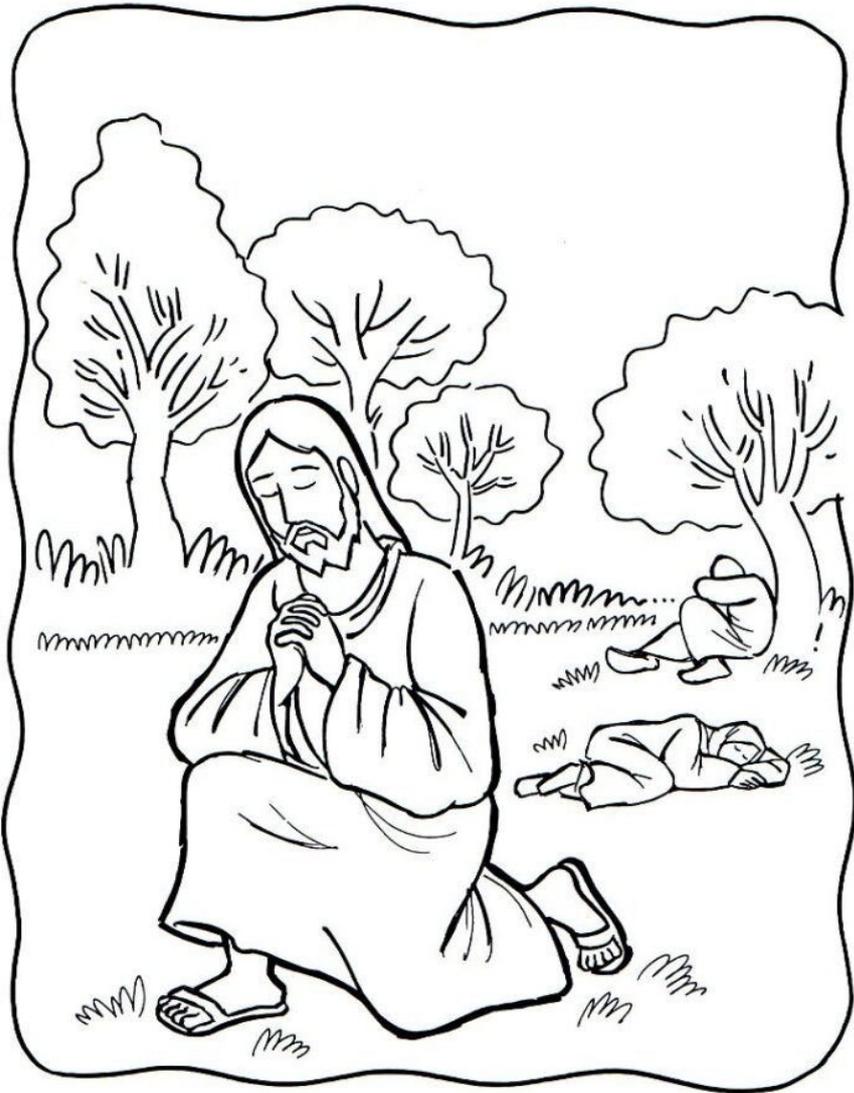
- 십자가 수난시 성모님과 함께 있음
-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심
(요한복음 19:26-27)
- 격동의 시기에 성모님을 자기집에
모시고 보호하는 지속적인 헌신
(교황 베네딕도 14세)

사도 요한의 특별한 역할 1



다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

- 베드로,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체험한 증인
- **최후의 만찬**
- 예수님 곁에 앉아 머리를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있는 어린 제자
- 예수님께서서 ‘사랑하시는 제자’



사도 요한의 특별한 역할 2

게세마니 동산에서의 고뇌의 시간

- 베드로, 야고보, 사도 요한에게 기도 요청

십자가상 수난과 죽음

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 곁에서 위로하심

- 흔들리지않는 충성심과 용기
-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함



사도 요한의 특별한 역할 3

부활의 현장 달려가 목적

- 마리아 막달레나의 빈무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감
- 먼저 도착 하였으나 연장자이며 지도자인 베드로를 기다렸다 함께 들어감



부활 후 교회에서의 역할

- 예루살렘에서 초기 교회에서 역할
- 비유대인 사회를 향한 바오로의 신앙과 사목을 베드로와 함께 지지
- 초기 교회의 박해 안에서 성장을 할수 있는 동력 제공

박해와 기적적인 생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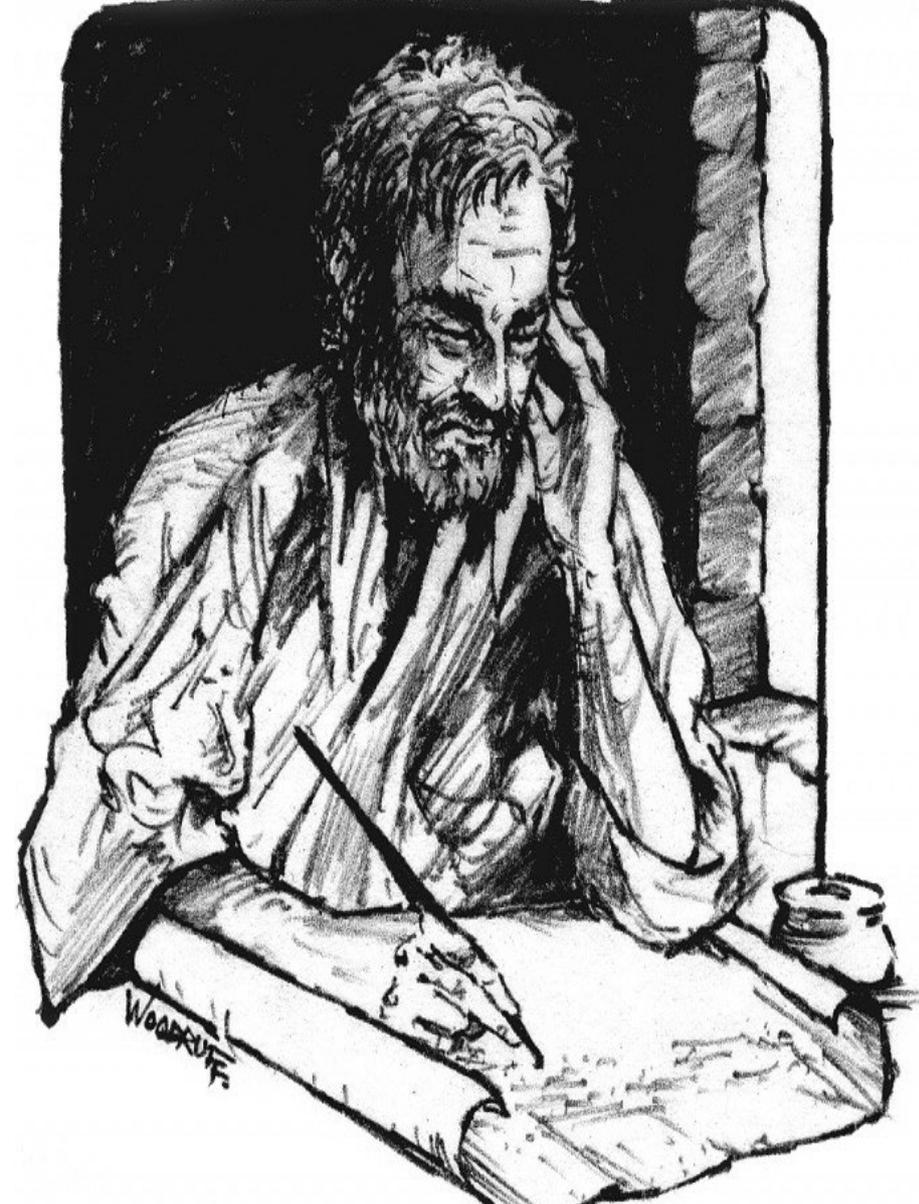


- 초대 교부 테르툴리안(Tertulian, AD160-220):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시아노 통치 (AD 81-96)시 박해
-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티끌만큼의 해를 입지않고 살아나옴
-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사도이며 확고한 믿음의 증거가 됨

파트모트 섬으로 유배

- 형벌로 주어졌지만 심오한 영적 계시의 시간이 됨
- 묵시의 이미지와 예언적 메시지
- 순교자로 삶을 마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 (AD 100년경 90세 넘어서)





지혜의 말씀 (요한 복음)

- 성서 학자 AD 65-85
- 복되신 성모 승천 이후에 쓰여짐:
- (가경자,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의 저서 “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”)
- 다른 복음사가들과 구별되는 점:
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거 제시,
관상가인 요한의 시각 (독수리 상징)
- 예수님을 영원한 로고스로 묘사하고
신성과 세상 태초부터 존재하심을
강조하는 신학적 진술로 시작 (요한
1:1-2)



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알려주고자하는 다른 세
공관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
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

구성

1장:1-18: 머릿글, 예수님 누구신지, 복음 전체 요약

1장:19-12장:50: 표징의 책, 하느님으로부터
파견된 아드님이신 예수를 계시

13장-19장: 영광의 책 하느님의 뜻에 따라
수난과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되심

20장 -21장: 주님의 부활, 교회와 그 통치권에
관한 가르침



지혜의 말씀 (서간)

- 세개의 서간 (요한 1서, 2서, 3서)은 요한의 전승을 이어받은 공동체에서 나왔지만 각 저자가 다름
- 요한 1서: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
- 요한 2서: 신앙인의 사랑 촉구하며 거짓 가르침 경계
- 요한 3서: 지역 교회의 여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편지
- 그리스도 공동체의 근원은 사랑,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증거임, 하느님의 계명안에서 조화와 일치로 이루는 삶



지혜의 말씀 (요한 묵시록)

- 파트모트 섬에 유배시에 보게 된 종말에 관한 계시와 함께 시련속에서 굳건히 살아가도록 위로와 용기, 선이 악을 이기는 궁극적 승리에 대한 비전
- 구성
 - 1장 1-8: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계시
 - 1장 9-3장 22: 환시 중에 본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로 전하라는 소명을 받음. 회개하고 인내하며 죽을때까지 참된 가르침을 지키라는 메시지



지혜의 말씀 (요한 묵시록)

4장 1-16장 21: '하늘에 열려 있는 문'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보게 됨, 하나님께서 일곱 번 봉인하여 놓은 두루마리를 뜯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심. 봉인이 개봉되면서 큰 환난을 겪어낸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 선포. 태양을 입고 별이 열 두개 달린 관을 쓰고 등장하는 여인 (성모님, 교회상징)

17장 1-22장 5: 하나님 심판 끝난 뒤 어린양의 혼인 잔치. '새하늘, 새땅과 새 예루살렘' (하나님의 새로운 창조, 에덴동산 회복)

22장 6-21: 맺음말, 예수님 말씀에 희망을 두며 그분의 오심 간구함



사도 요한의 용기와 헌신

-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
- 십자가상 수난 현장에 있으면서 고난 동참
- 성모님께 대한 헌신
- 박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의지
- 바로 사도의 이방인을 위한 전교에 대한 이해와 지지와 초기 공동체의 사목적 돌봄
- 글과 모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



레지오 마리아에 미친 영향

- 사도 요한의 용기있는 삶,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친밀한 관계
- 복음 사가 요한의 예수그리스도에 삶과 사명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
- 사도 요한의 결단력과 강인한 믿음 등은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한 프랭크 더프에게 영감을 줌



- 몽포르의 루도비꼬 성인의 저서
“마리아에 대한 참된 신심”

- 레지오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도 요한의
삶

(마리아와 교회 활동에 대한 기도와
적극적인 협력으로 발전된 단원들의
거룩함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
것)



레지오 마리아 영적 활동

위로 (Consol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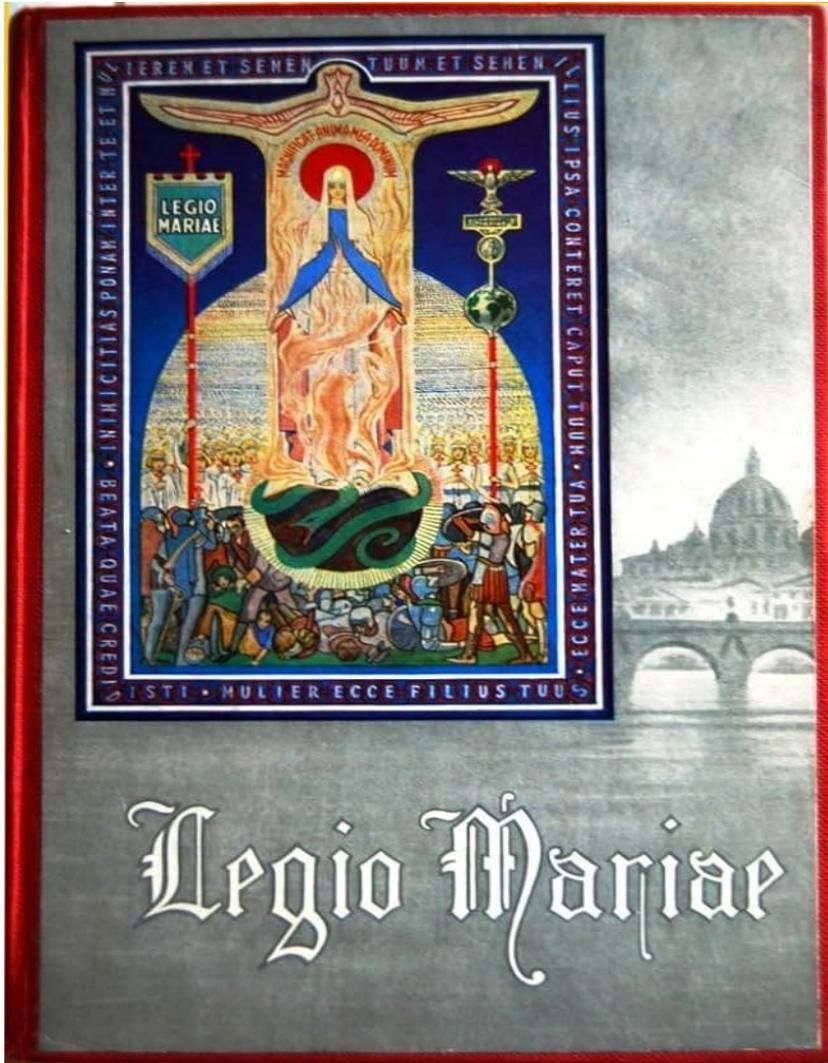
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영적, 정서적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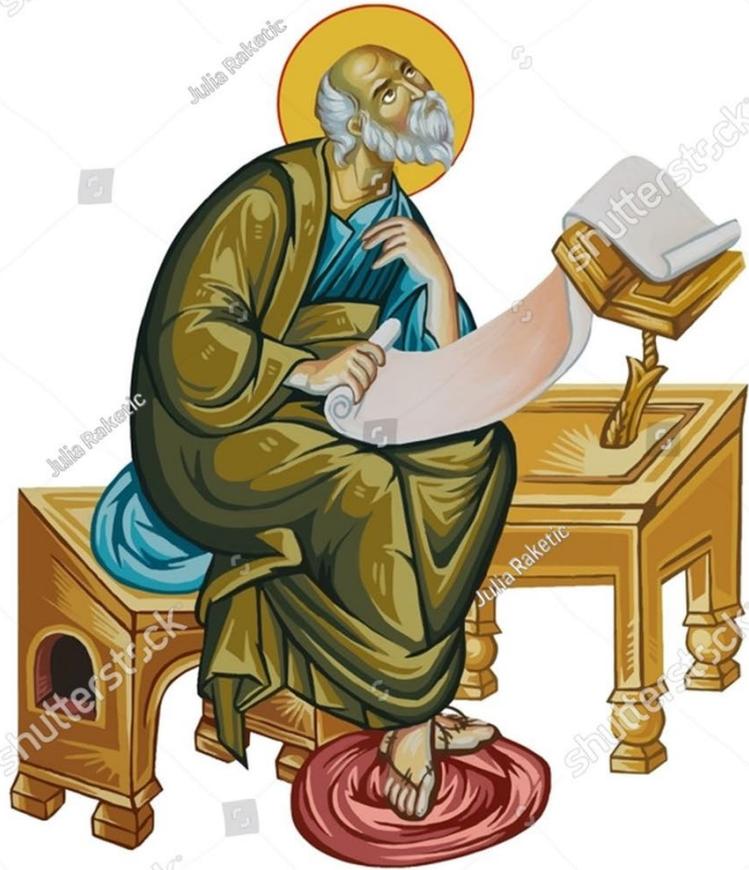
보존 (Conservation)

레지오 교본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 포함하고 영적 독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 생활에 반영 및 교회의 사목에 협조하도록 함

맺음말

- 사랑받는 제자: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
- 예수님 공생활 사목의 중추적 역할
- 박해속에서도 심오한 복음과 서간, 요한 묵시록 등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확장
- 성모님과 초기 교회 공동체를 돌봄 등은 레지오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에 부합되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





복음사가 성 요한의 축일
12월 27일

작가, 사랑, 충성, 레지오
마리아 및 여러 미덕의
수호성인.

사도 성 요한,
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